

제10장 <<스만이본풀이>>

김형근(동아대 교수)

I. 죽을 고비를 넘긴 ‘스만이’

인간은 인력(人力)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두려움을 갖는다. 삶과 죽음, 질병, 자연재해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초월적인 힘에 기대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신앙이 생겨난다. 그렇게 신앙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에 대한 대가로 신앙민들은 다양한 신앙 행위들을 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의례’의 형태로 나타난다. 제주의 굿도 그 의례의 한 형식이며, 이 의례에는 신화가 불려진다.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어르신네들의 말들처럼 사람의 죽음에는 어떤 질서, 이른바 로직(logic)이 없기에 그 공포와 충격이 크다. 제주신화(본풀이)에 한 인물 중 죽음을 면한 이가 있다. 그 이름이 ‘스만이’이다. 어떻게 스만이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까?

<스만이본풀이>는 ‘스만이’라는 인물의 본을 푸는 신화다. 보통 본풀이의 주인공은 곧 신(神)이 된다. 그런데 이 ‘스만이’는 신이 되지는 않아 다소 특수성이 있다. 이 본풀이는 시왕맛이의 액막이 절차에, 또는 각 각정의 ‘맹감제’에서 액막이를 위한 목적으로 불린다. 그래서 그 의례 명칭으로 맹(맹)감(冥官)본풀이라고도 한다. 이 신화의 주요 핵심은 스만이가 우연히 얻은 백골을 잘 대접하여 자신의 수명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 연장의 과정에서 직접 스만이가 했던 의례가 시왕맛이 액막음이었다. 그래서 이 본풀이는 ‘액막음’의 유래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다.

<스만이본풀이>는 지금까지 10여 편 정도가 채록되었다.¹⁾ 이야기의 편차가 크진 않고 전체적인 내용 전개는 비슷하다. 대체적으로 다음 다섯 단계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① 스만의 총 구입, ② 해골의 습득, ③ 해골에 대한 정성과 부의 축적, ④ 스만의 죽음 직면, ⑤ 해골의 도움으로 죽음 모면이 그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스만이본풀이>의 줄거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

1) 여러 구술본들을 학계에서는 이본(異本)이라고 표현한다. 문자 전승이 아닌 구술로 전승되는 경우 그 가사는 부르는 사람의 가변성이 있다. 또 부르는 사람의 생각들이 투영되면 그 이야기에 내용이 가감되거나, 바뀌기도 한다. 이런 편차를 연구하는 것이 이본 연구이다.

2) 흔히 이 부분에서 학자들은 ‘서사단락’을 나누어 제시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딱딱하다. 하여 필자는 줄거리를 제시한다.

옛날에 ‘스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일찍 부모를 잃고 거지처럼 지내다 15세에 결혼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자식들이 있음에도 굶어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부인이 나섰다. 머리카락을 잘라 스만에게 주었다. 장에 가져가 팔아 그 돈으로 양식을 사오라는 것이었다. 스만이 장에 나가 머리카락을 팔았다. 그런데 그 돈으로 양식을 사지 않고 엉뚱하게 사냥총을 사가지고 돌아온다.

부인은 당연히 원망의 소리를 하였지만 스만이는 태연했다. 이렇다할 직업이 없던 스만이 이제 총이 생겼으니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데 맘처럼 사냥이 되지는 않아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어느날 사냥을 하러 갔다가 풀속에서 무엇인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마치 무엇인가가 발목을 잡는 듯하였다. 스만이 풀썩을 헤치자 거기에는 백골(白骨)이 있었다. 스만이는 그 백골을 집으로 가져와 창고에 두고 모신다. 조상제사나 명절 제사가 있으면 조상들보다도 먼저 예를 드렸다. 그 이후로 스만의 사냥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스만의 수명이 30세였고, 저승차사가 스만을 잡으러 온다. 이를 먼저 안 백골은 스만에게 이 위기를 피할만한 대책을 알려준다. 저승으로부터 스만을 잡으러 오는 저승차사를 위해 먹을 것을 대접하는 일이었다. 허기에 지친 저승차사들은 누가 채려놓은지 그 음식들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스만이 차려놓은 음식이었다. 저승차사도 인정이 있는지라 음식을 얻어 먹고 스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것이 미안했다. 그래도 일단 스만이집으로 찾아갔더니 집에서는 액막이를 하고 있었다. 이래저래 스만을 데려가지 못한 저승차사들은 스만이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 잡아서 저승으로 돌아간다.

앞서 말했듯 <스만이본풀이>는 신의 근본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본풀이는 무엇의 ‘근본’을 알고자 하는 것일까? 위의 이야기에는 두 개의 단서가 눈에 들어온다. 첫 번째, ‘사냥, 해골’이 키워드다. 사냥을 나가 해골을 발견하고 이를 신으로서 모셨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부자도 되고, 죽음의 위기도 모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대명(代命)’이 키워드다.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 내지는 물건으로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다는 것을 대명이라고 한다. 스만이는 해골을 잘 모신 덕에 자신의 정해진 수명인 나이를 넘겨 장수를 할 수 있었다. 해골의 방책대로 스만을 잡으러 온 저승차사를 속여서 가능했다.

Ⅱ. 사냥신 해골을 모시다

상상해보자. 산에 올랐다 난데 없는 ‘해골’을 발견했다면? 끔찍했을 것이다. 몸이 오싹하고 그곳을 어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스만이는 그 해골을 집에 가지고 와서 정기적으로 제사상 차려 절을 올리듯 예를 치루기까지 한다. 오히려 자신의

조상들보다 더 소중히 위한다. 역시 신화는 비정상적인 이야기다. 인간의 상식으로서 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반대로 그러니깐 신의 이야기, 신이로운 이야기 즉 ‘신화’ 다.

그런데 이런 신이한 현상은 실제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경험하고 있다.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강신무들의 경험과 유사하다. 멀쩡하던 사람이 신병(神病)에 걸리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도 병명 미상으로 나오는 증상을 입기도 한다.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하기도 한다. 잠자다가 갑자기 뛰쳐나가 맨발로 산에 올라가기도 한다. 맨손으로 흙을 파보니 그 속에서 무당 방울을 파오기도 한다.

구애비는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 무업을 통해 사용되었던 신구로 현실화되는 데, 무당이 될 어떤 사람이 신병을 앓다가 이를 떠오르는 것을 “구애비 떴다”라고 한다. 구애비는 무당이 무업을 청산할 때, 만들어지는 무업의 종결로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애비의 창출은 무업의 끝맺음이자 시작인 셈이다. 신구들은 무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나이가 들어 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비밀리에 깊은 산속이나 땅 속에 파묻어 둔다. (중략) 구애비의 신구에는 방울, 엽전, 부채, 무신도, 신복 등이 있다. 천이나 종이로 된 것들은 쉽게 부식되어 없어지지만 쇠붙이는 녹은 슬더라도 오랫동안 형체가 보전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구애비를 뜨면 으레 무당이 되는 것이고, 또한 무당이 되기 위해선 구애비를 떼야 되었다.³⁾

스만이는 바로 그런 신과의 만남 체험을 했고, 그 신을 자신의 조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신참 무당은 누군가 무당을 했던 이가 썼던 무구를 획득함으로써 이제 무당이 되는 자격을 얻었듯이, 스만이 또한 누군가 사냥꾼을 했던 이의 도구를 획득함으로써 이제 어엿한 ‘사냥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스만이가 장에서 사온 총은 다름 아니라 한 사냥꾼의 것이었다.

해골의 정체는 무엇일까? 해골은 사실 스만이가 장에서 사온 총의 원래 주인임이 많은 이본들에 나온다. 스만이가 해골을 만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총을 매개로 한 필연의 만남이었다. 이 총 주인은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영(靈)의 상태가 되었는데, 스만이가 총을 가지고, 그 영이 떠도는 곳에 오게 되면서 이른바 ‘수렵신’으로서의 도약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해골이 스만이에게 자신을 집에 잘 간직하여 모실 것을 요구하고 스만이는 이를 잘 따라준다. 이제 억울하게 떠돌던 포수의 영혼은, 스만이를 위해 아낌없이 베푼다. 그 덕에 스만이는 부자가 되고, 단명할 운명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신화는 신앙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신(神)의 존재를 알고, 그 신에 대한 공경을 하면 신은 분명 그 인간에게 보답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사냥’ 부분은 더 해석이 필요하다. 왜 하필이면 제주도 사람들이 주로 업으로

3) 양종승(2009), 구애비, 한국민속대백과사전:무속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삼는 농업도, 어업도 아닌 특수한 ‘사냥’일까? 그래서 연구자들 중에는 이 본풀이(신화)가 과거 수렵생활이라는 문화 배경 속에서, 실제 그것을 업으로 삼는 이들의 의례에서 불러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⁴⁾ 본격적인 제주도 본풀이의 연구를 한 현용준의 글에서도 이것은 확인된다.

스만의의 수렵은 취미 오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생업이 없이 전적으로 수렵을 했다면 이는 수렵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이거나 그 이후라도 수렵이 전업으로 행해지던 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수렵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⁵⁾

조금만 더 상상을 하자. 수렵시대에 형성되었을 이 신화가 더 이상 수렵시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사라졌을 것이다. 더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신화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화의 변개가 필요하다. 원래는 수렵을 잘 하기 위하여 그 신의 내력을 푸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수렵신’이라는 부분은 약화되면서(인간의 먹거리 생산방식이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 내지 신앙으로서 전환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이 신화를 접하는 우리들의 관심을 ‘사냥, 해골’에서 ‘대명(代命)’으로 축약되는 죽음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상상만은 아니었음을 실제 한 사례를 보자. 요즘도 제주의 중산간마을, 이른바 소와 말을 방목하여 키우던 지역에서는 ‘멧(멧)감제’를 드리며, 이 때 ‘<스만이본풀이>(멧감본풀이)’를 구송한다. 이 의례는 새해 생업의 번창을 위한 것인데, 생업이란 곧 과거 관습대로 ‘목축(牧畜)’과 관계된다. 다만 생업의 변화에 따라 목축업은 사라지고, 그와 결부하여 ‘멧(멧)감제’ 또한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멧(멧)감제’를 하는 집들이 더러 있지만 그것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집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굳이 ‘목축업’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생업 번창과 가족 안녕을 위해 하고 있다.

이간정중안에 고씨대주 예순아홉 [요령] 조상부모 본인 테사른 땅이웨다. (중략) 예순아홉님은 부모슬하에서 부모님광 의지헤여 살젠 허여 엔날 하르바님때부터 유강허고 부강하여 말 백쉬 쉼 백쉬 거느려 눈미와산 테집이 나면 [요령] 건이우품나고 유강허고 부강허게 잘 사는 집안이엔 건이우품난 집안인데 [요령] 예순아홉님 아버지 산 때부터 집안 고택에 웃대 정근 조상님네 잇고 [요령] 조상님네 위로 적선하고 영허든 집안이우다. [요령] 해마다 드르멧감 메고 집 안 문전으로 문전철같이 과세문안 들며 서로 조상님네 집안 부모 영감님네 다 읊

4) 현승환(2000), 사만이본풀이 연구, 백록어문 16집, 백록어문학회.

현용준(2005), 제주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윤순희(2009), 제주도 와산리 멧감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김형근(2010), 제주도 <멧감본풀이>(<<스만이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탐라문화 36집, 탐라문화연구소.

5) 현용준, 위의 책.99쪽.

센 해여 잔이 혼 잔 씹이라도 위 불령 다 드리고 삼년 일등 큰굿 허고 죽은굿
허고 허던 집안인데⁶⁾

이는 와산리에 거주하는 고씨댁의 ‘맹감제’ 중 초감제에서 불려지는 ‘연유담음’ 부분이다. 왜 이곳을 하는지 신에게 고하는 것인데, 이 문면을 보면 이 집안이 말 100마리, 소 100마리를 키운 말테우리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집은 25년 전부터는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맹감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맹감은 굳이 ‘수렵신’으로만 관념하는 것이 아닌 ‘생업신’으로 확장되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수렵신을 의미할 때는 ‘산신맹감’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기도 한다.

<스만이본풀이>는 막연히 ‘신(神)’의 존재를 알고, 그 신에 대한 공경을 하면 신은 분명 그 인간에게 보답한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신화가 아니다. ‘수렵신’에 대한 본풀이로 출발하여, 이제 생업의 다변화로 ‘생업신’에 대한 본풀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스만이본풀이>를 구연함으로써 생업신을 의례에 초청하여 대접함으로써, 굿을 의뢰한 이들이 하는 ‘생업’의 번창들을 기원하는 신화인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액을 막는 기능으로서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Ⅲ.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다

사냥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한 백골을 엄중하게 조상처럼 받든 스만이는 일이 잘 풀리게 된다. 사냥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스만이의 정해진 수명은 30(또는 33)세까지. 저승으로부터 채사(저승사자)가 스만이를 잡으러 온다. 이본에 따라서는 조상들이 너무 스만이가 자신들다는 해골을 위한다고 저승의 왕(옥황상제 또는 염라대왕)에게 소위 컴플레인(complaint)을 걸자 잡아오라는 명령을 했다고도 한다. 참 인간다운 신들이다. 서운함을 느끼기도, 또 더 힘이 썸 존재에게 고자질을 하기도 하니 말이다.

그렇게 세 명의 저승채사(사자)가 스만이를 잡으러 이승에 파견된다. 이를 알고 있는 해골이 미리 대책을 세워준다. 긴 여정에 허기져 있을 저승채사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 저승채사 또한 참 인정이 많다. 먹을 것을 받아먹었으니 차마 스만이를 잡아가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다른 대상을 잡아간다. 이본에 따라 말(馬)이기도 하고, 아니면 유사한 이름의 타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스만이본풀이>의 후반부 이야기는 ‘대명(代命)’ 모티프(motif)를 담고 있다.

자기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 내지는 물건으로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대명’ 또는 대수대명(代壽代命)’이라 한다. 이 ‘대명’의 모티프는 다른 지역의 무속신화에서

6) 윤순희(2009), 앞의 논문. 24쪽.

도 두루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함경도의 <황천혼시>(또는 <혼쉬굿>), 전라도의 <장자풀이>가 그러한 예이다. 그래서 이를 묶어서 ‘대명(代命) 신화’라 명명한 학자도 있다.⁷⁾ 달리 <스만이본풀이>는 ‘백년해골형 무가’,⁸⁾ 또 ‘치성차사형 무가’⁹⁾라 분류되기도 한다. 명칭이 어찌 되었든 유사한 이야기가 제주도 뿐 아니라 여러 지역들에 두루 존재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함경도의 <황천혼시>는¹⁰⁾ 지금까지 두 편의 무가가 채록되어 전해진다. 김쌍돌이 구연본 <황천혼시>과 강춘옥이 구연한 <혼쉬굿>이다. 김쌍돌이 구연본은 일제강점기(1926년 3월)에 조사된 자료이고, 강춘옥 구연본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으로 이주한 함흥 출신 무녀 강춘옥을 대상으로 조사 채록한 것이다.

김쌍돌이 구연본에는 이 무가가 한국어와 일본어 두 가지가 같이 실려있다. 한국어의 제목은 ‘黃泉혼시-三兄弟神의 노래’라 되어 있고, 일본어의 제목은 ‘黃泉曲-三兄弟神の歌’이다. 그리고 이 무가의 말미에는 일본어로 “이 노래는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삼형제 신을 향해 불렀던 것으로, 그 제사와 기도의 내용을 모두 황천혼수, 혹은 황천혼시라고 칭한다”¹¹⁾라 설명하고 있다.¹²⁾ 이와 달리 강춘옥 구연본에서는 본격적인 무가에 들어가기 앞서 “옛날 시절에 황천 도액이라 황천 혼시라 이런 혼시근본 사적이 어떠합니다(가?)”¹³⁾라고 되어 있어 ‘황천’, 즉 죽음의 액을 면하기 위한 무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김쌍돌이 구연본을 중심으로 그 줄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무척이나 가난하게 살던 삼형제(송림동이, 이동이, 사마동이)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해골을 발견한다. 삼형제는 이 백골을 집에 모셔와 제사를 드려 큰 부자가 되었다. 어느날 백골이 눈물을 흘리며 삼형제에게 염라대왕이 잡아갈 것이라 알린다.(즉, 죽는다는 의미) 그리고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일러준다. 삼형제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가 오는 길에 미리 음식을 잘 차려놓자, 저승사자가 그 음식을 먹는다. 후에 삼형제가 나타나 저승사자에게 살려달라고 빈다. 그리고 송림동이는 누런 황소를, 이동이는 유삼(油衫) 한 벌을, 사마동이는 낫동이를 대신 바치고, 저승사자는 이것을 가지고 염라대왕에게 변명을 한다. 이로써 삼형제는 여든 하나까지 살다가 죽는다.

우연한 해골의 발견과 그에 대한 정성으로 인하여 죽음의 횡액을 모면한다는 이야기

7) 김태곤(1989),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이들 무가의 비교연구는 이주영(2010), 代命型 서사무가들의 이본 간 관계 및 구조 결정 요인, 구비문학연구 31집, 한국구비문학회. 참조.

8) 서대석(1968), 서사무가연구-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9) 최원오(1997),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집, 한국민속학회.

10) 김쌍돌이 구연본은 손진태(1930),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2012), 조선신가유편: 이북 땅의 무가 1, 박이정.에 실려있고, 강춘옥 구연본은 임석재·장주근(1964), 관북지방무가,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3(13-15호), 문화재관리국. 367~380쪽에 실려있다.

11)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2012), 조선신가유편:이북 땅의 무가 1, 박이정. 37쪽.

12) 흔히 세 명의 형제신은 여러 지역의 무가에는 ‘삼불제석’, ‘三神’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어머니로 ‘당금애기’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 신화(또는 무가)를 ‘당금애기본풀이’(다른 말로는 ‘제석본풀이’)라 부른다. 이 무가는 ‘제석굿’에서 구송되며, 이 신의 직능은 아이들의 출산과 성장을 관장한다. 설명으로 판단하건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전승하는 ‘제석본풀이’에 해당하는 함흥지역 무가가 바로 ‘황천혼시’라는 설명이다.

13) 임석재·장주근(1964), 관북지방무가,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3(13-15호), 문화재관리국. 369쪽.

의 줄거리, 그리고 저승사자를 따돌리는 모습이 <스만이본풀이>와 신기하게도 일치하고 있다. 다만 <스만이본풀이>는 수렵의 과정에서 해골을 발견하는 것과 달리 <황천혼시>에서는 농경이라는 점이 차이점을 보인다. 해골은 등장하지 않지만 죽음의 횡액을 모면하는 ‘대명(代命) 모티프(motif)’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장자풀이>에서도 발견된다.¹⁴⁾ 이 무가는 무척 많은 이본들이 존재한다.¹⁵⁾ 그 중 전금순 구연본을¹⁶⁾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사마장자와 우마장자가 살았다. 사마장자는 부자로 살았지만 인색하였고, 마치 놀부처럼 행실이 좋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우마장자는 가난했지만 착하게 살았다. 하도 사마장자의 행실이 좋지 못하여 이 소식이 저승 시왕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벌로 사마장자를 잡아오도록 하였다. 어느날 사마장자가 꿈을 꾸는데 머느리의 해몽에 의해 죽음이 예견되었다. 이를 믿지 못하여 점을 치는 이를 찾아가니 역시 죽음과 관련한 꿈이었다. 그제서야 사마장자가 대책을 묻자 점쟁이는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적선을 하고, 저승사자 대접을 잘 하라고 일러준다. 사마장자의 대접을 받은 저승사자가 대신 이웃에 사는 우마장자를 잡아 저승으로 간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이를 알고 저승사자를 꾸짖고 우마장자를 풀어준다.

함흥에서 전승되었던 <황천혼시>, 전라도 중심으로 전승되는 <장자풀이> 등의 무가와 <스만이본풀이>의 내용이 유사함을 살폈다.¹⁷⁾ 이런 서사의 유사성은 원래의 문화가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보는 연구방법 전파론(diffusionism)의 사례로 눈여겨볼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파의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전파되었다라는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연구로는 ‘서사가 유사하다’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IV. <스만이본풀이>를 언제 부르는가?

앞서 살폈듯 <스만이본풀이>는 두 개의 중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선 해골로 등장하는 ‘수렵신’에 대한 신화이다. 또 하나는 죽음의 횡액 등을 막는 ‘액막이’의 유래를

14) 전라북도 익산, 군산과 가까운 충청남도 부여에서도 채록된 바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무가의 채록지 대부분은 전라도이다.
15) 여러 이본에 대한 정리와 내용 정리 등은 다음의 논문 참조. 홍태한(2001), <장자풀이> 무가 연구, 한국의 민속과 문화 4,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 이주영(2010), 代命型 서사무가들의 이본 간 관계 및 구조 결정 요인, 구비문학연구 3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6) 전라북도립국악원(2000),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247~251쪽.
17) 한편 무속신화(무가)가 아닌 불교계 고전소설인 <왕랑반혼전>도 <스만이본풀이>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도 흥미롭다. (정제호(2016), 서사무가에 나타난 <왕랑반혼전> 수용의 양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41집, 고소설학회. 참조)

설명하는 신화이다. 본래 각각의 별도 서사가 느슨한 연대를 이루어 하나의 신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중성은 실제 의례에도 드러난다.

• ‘맹(맹)감제’에서의 <스만이본풀이>

신년 생업의례로 행해지는 ‘맹(맹)감제’에서는 전자의 기능으로 불려지고, 시왕맞이의 액막이에서는 후자의 기능으로 불려지는 것이다. 서사의 이중성을 가진 <스만이본풀이>는 의례의 성격 또는 목적에 따라 병용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요즘도 제주의 중산간마을, 이른바 소와 말을 방목하여 키우던 지역에서는 ‘맹(맹)감제’를 드리며, 이 때 ‘<스만이본풀이>(맹감본풀이)’를 구송한다. 이 의례는 새해 생업의 번창을 위한 것인데, 생업이란 곧 과거 관습대로 ‘목축(牧畜)’과 관계된다. 다만 생업의 변화에 따라 목축업은 사라지고, 그와 결부하여 ‘맹(맹)감제’ 또한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맹(맹)감제’를 하는 집들이 더러 있지만 그것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집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굳이 ‘목축업’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생업 번창과 가족 안녕을 위해 하고 있다.

이간정중안에 고씨대주 예순아홉 [요령] 조상부모 본인 테사른 땅이웨다. (중략) 예순아홉님은 부모솔하에서 부모님광 의지헤여 살젠 허여 엔날 하르바님때부터 유강허고 부강하여 말 백쉬 쉼 백쉬 거느려 눈미와산 테집이 나면 [요령] 건이우품나고 유강허고 부강허게 잘 사는 집안이엔 건이우품난 집안인데 [요령] 예순아홉님 아버지 산 때부터 집안 고택에 웃대 정근 조상님네 잇고 [요령] 조상님네 위로 적선하고 영허든 집안이우다. [요령] 해마다 드르맹감 메고 집 안 문전으로 문전철같이 과세문안 들며 서로 조상님네 집안 부모 영감님네 다 읊센 하여 잔이 훈 잔 싹이라도 위 불령 다 드리고 삼년 일등 큰굿 허고 죽은굿 허고 허던 집안인데¹⁹⁾

이는 와산리에 거주하는 고씨 집안의 ‘맹감제’ 중 초감제에서 불려지는 ‘연유답음’ 부분이다. 본격적으로 신을 초청하는 무가를 부르기에 앞서 왜 이 굿을 하는지 신에게 알리는 것이 ‘연유답음’이다. 이 문면을 보면 이 집안이 말 100마리, 소 100마리를 키운 말테우리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집은 25년 전부터는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맹감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맹감은 굳이 ‘수렵신’으로만 관념하는 것이 아닌 ‘생업신’으로 확장되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수렵신을 의미할 때는 ‘산신맹감’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제주도곳에서 ‘맹감’하면 일반 생업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렵신인 ‘산신맹감’은 이것의 하위 영역이 된다. 그런데 <스만이본풀이> 신화를 기준으로 보면, 본래 수렵신을 위한 본풀이가, 생업의 다변화로 일반 생업신으로 확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18) 언제부터 이런 이중성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이중성은 의도적인 변개인가하는 점은 아직 연구되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이다.

19) 윤순희(2009), 앞의 논문. 24쪽.

추측이 드는 것이다.

• 시왕맞이 등에서의 <스만이본풀이>

한편 <스만이본풀이>는 맹감제 외에도 시왕맞이 또는 시왕맞이를 포함하는 큰굿의 액막음에서, 당굿 중 도액막음에서 구송된다. 시왕맞이는 저승의 심판관이라 관념하는 시왕(十王)을 청하여 영가가 저승의 좋은 곳으로 가도록 기원하는 의례이다. 이 시왕맞이는 그 자체로 단독적으로 하기도 하고, 큰굿의 일부로 하기도 하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오구굿과 다른 사정이 있다. 아무튼 시왕맞이는 단독이든, 큰굿의 일부이든 죽은 망자의 극락 천도를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큰굿 중 시왕맞이 제차를 살펴보면 <맹감본풀이>가 액막음의 과정에 불러지는 무가이며, 저승차사를 청배하고, 저승의 길을 닦는 ‘질침’의 앞서 구송됨을 알 수 있다.²⁰⁾

- | | |
|-----------------|-------------------|
| 1. 초감제 | 6. 나까도전 침 (지장본풀이) |
| 2. 방광침 | 7. 삼천군병질 침 |
| 3. 체스본풀이 | 8. 질침(ㄹ큰질침) |
| 4. 시왕 도올리고 석살림 | 9. 체스본풀이 |
| 5. 액막이 (사만이본풀이) | 10. 메어듬 |

제주도 시왕맞이에는 세 개의 본풀이가 순차적으로 불러진다. <체스본풀이>, <스만이본풀이>, <지장본풀이>가 그것이다. <체스본풀이>는 체사를 청해 모시는 의미로 구송되며, <스만이본풀이>는 액막이의 유래로서 푼다. 나까시리라는 신께 떡을 바칠 때에는 <지장본풀이>가 구송된다. 나름 세 개의 무가가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일텐데 육지의 사례로 보면 의문이생긴다. 체스본풀이와 사만이본풀이는 ‘저승체사(저승사자)’라는 기준으로서 중복이 생기고, 사만이본풀이와 지장본풀이는 ‘액막이’라는 기준으로서 중복이 생긴다.

육지의 사례에서 저승사자와 관련한 굿거리 또는 무가는 하나의 굿에서는 한 차례만 등장한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체사본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만이본풀이>가 존재한다. 같은 신격이 여러 번 등장하고, 그 때마다 형상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민으로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체사본풀이>에서는 강림차사가 등장하여 그 일대기가 불러지며, 그 활약이 그려진다. 그런데 <스만이본풀이>에서는 저승 삼차사가 어리숙하게 일종의 ‘뇌물’에 못이겨 스만을 잡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아무튼 <사만이본풀이>는 저승체사의 본을 푸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스만이가 죽음을 면했다는 것을 들어 ‘횡액을 막는’ 목적이라고 관념하기 때문에 병존을 용인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또다시 혼란스러운 것은 <지장본풀이>의 존재이다. 지장본풀이는 부정한 것, 새(邪)를 쫓는 기원 내지 신인 지장아기씨에 대한 본풀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20)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액막음은 이 <지장본풀이>가 더 어울린다. 바로 이러한 의문으로 필자는 <스만이본풀이>가 시왕맞이에서 액막이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수렵신으로서의 본풀이가 본래적인 쓰임이었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V. 같으면서도 다른 <스만이본풀이>

지금까지 알려진 <스만이본풀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¹⁾

연번	제 목	구연심방	채 록 자	조사(녹음)시기
1	冥監本解	고대중	장주근	1962
2	맹감본	이춘아	진성기	1956-63 채록
3	맹감본	변신생	진성기	"
4	맹감본	한태주	진성기	"
5	액막기	김만보	현용준	1965
6	스만이본풀이	안사인	현용준	1969
7	명감(스만이)본풀이	이중춘	문무병	1991
8	명감(스만이)본풀이	이중춘	문무병	1994
9	사만이본풀이	서순실	강정식 외	2006
10	맹감본풀이	이용옥	허남춘 외	2008
11	맹감본풀이	양창보	허남춘 외	2010
12	맹감본풀이	고순안	허남춘 외	2013
13	맹감본풀이	서순실	허남춘 외	2015

이들 이본들 중 2번의 이춘아 심방이 제보한 것²²⁾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이야기의 열개가 비슷하다. ① 스만의 총 구입, ② 해골의 습득, ③ 해골에 대한 정성과 부의 축적, ④ 스만의 죽음 직면, ⑤ 해골의 도움으로 죽음 모면이 그것이다. 각 이본간의 차이를 이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²³⁾

21) 1.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장주근(1974), 韓國の民間信仰-資料篇, 金花畵의 것 재수록)

2.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3.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4.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5. 현용준(1989),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제주도무당굿놀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3집, 문화재관리국.

6.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7. 문무병(1998),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8. 문무병(2001), 제주도큰굿자료:1994년 동김녕 문순실댁 중당클굿, 제주전통문화연구소.

9. 강정식 외(2008), 동북 정병춘댁 시왕맞이, 보고서.

10. 허남춘 외(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11. 허남춘 외(2009),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12. 허남춘 외(2013),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13. 허남춘 외(2015),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2) 이 이본은 <스만이본풀이>의 전반부만 구송되어 있다. 즉, 수렵신으로서의 <스만이본풀이>만 담고 있다.

• 스만의 총 구입

<맹감본풀이>의 첫 서사단락은 일찍 부모를 잃은 스만이 밥을 빌어먹고 살다가 부인을 만나지만, 역시나 배고픔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느 날 부인이 자신의 머리카락 잘라 스만에게 팔아서 식량을 사오라 부탁한다. 하지만 스만이는 식량 대신 사냥총을 사온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모든 이본이 공통적이다. 다만 이본에 따라 스만의 출생, 스만과 부인의 결혼 방식, 총을 구입하기 위한 돈의 마련에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스만의 출생에 관련하여 스만이 부자집(한태주), 내지는 정승의 태생(이춘아)라는 설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핵심은 조실부모하여 경제적인 결핍을 당한다는 설정이고, 밥을 빌어먹는 과정에서 같은 처지의 부인을 만난다는 것이다. 보통 스만과 부인은 빌어먹다 만나는 것으로 그려지나, 김만보,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동네의 어른들이 짝을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 총을 구입하기 위한 돈의 마련은 대부분의 이본들이 부인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고대중 구연본에서는 장제대감에게 돈을 꾸어오거나, 한태주 구연본에서는 부인이 천년장제에게 돈을 꾸어서 주었지만 그 돈을 남을 돕는데 써 버리고 마침내 머리를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춘아 구연본은 가장 이질적인 이본인데, 바로 첫째 서사 단락에서 구연이 끝난다. 청태산 마귀할아버지가 나타나 머리 판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총을 사서 사냥을 하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사냥을 잘하여 잘먹고 잘살았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 해골의 습득

구입한 총을 가지고 스만이 익숙하지 않은 사냥을 하지만 번번히 실패하다가 문득 해골을 만난다. 그리고 그 해골이 지시하는 대로 조상을 삼기 위하여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이 두 번째 서사단락이다. 이본별로의 차이점은 해골을 어떻게 만나는가, 해골이 어떤 존재인가이다.

고대중, 변신생 구연본에서는 사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스만이 잠 들고, 꿈속에서 해골이 나타나 자신의 존재와 바라는 바를 말한다. 그리고 날이 새어 실제 그 해골이 어디선가 굴러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춘, 서순실 구연본에서는 간밤에 부르는 소리가 있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그 다음날 해골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태주, 김만보 구연본에서는 산에서 밤을 샌 후 직접 해골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용옥 구연본에서는 해골이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깨고 해골이 묻혀있는 곳을 말해주어, 직접 가서 해골을 파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산길을 걷다 발에 채이는 것이 있어 땅을 파보니 해골이 나왔고, 해골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만이 판단하여 집으로 모셔온다고 되어 있다. 스만이 구입한 총이 실제

23) 이하의 부분은 필자의 다른 글. 김형근(2010), 제주도 <맹감본풀이(<스만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탐라 문화 36집, 탐라문화연구소. 129~133쪽의 것을 문장만 가다듬어 인용한다.

로는 해골의 총이었음을 많은 이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중, 이중춘, 서순실, 변신생, 한태주 구연본에서 그러한 대목이 존재하고, 본인이 서울 백정승의 아들이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이본별 차이가 있다. 고대중 구연본은 백정승의 아들이었고 일등 포수였는데 자신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다. 이중춘 구연본에서는 광풍, 한태주 구연본에서는 사냥 왔다 잠시 총을 나무에 받쳐 둔 사이 도둑이 와서 자신을 쏘서 죽었다고 했다. 이용옥 구연본에서는 사냥하다 쏘고 배고파서 죽었다고 했고, 서순실 구연본에서는 자세한 이유가 구연되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살아생전 사냥을 했던 백정승 아들이 불의한 사고로 인해 죽음을 당하였고, 스만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총의 원주인이었음이 많은 이본들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다.

• 해골에 대한 정성과 부의 축적

산에서 해골을 가져왔지만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염려하여 처음에는 집 밖에 놓았던 것을 집으로 모셔와 조상 모시듯 모시고, 그 이후로 사냥이 잘되어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이다.

이본별로 주먹밥(고대중), 물팡돌(변신생, 한태주), 멀쿠실낭(이중춘, 서순실, 이용옥) 등으로 차이를 보이나 집에 바로 가져오지 않고 임시적으로 놓아두었다는 내용이고, 결국 이것을 잘 모셔두고 명절마다 정성드림에 따라 사냥이 잘되었다는 내용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 스만이의 죽음 직면

해골을 위하고 사는 스만이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 단락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만이가 죽게 되는 이유에 대한 이본별 편차가 있다. 고대중, 이중춘, 서순실 구연본에서는 해골에만 정성을 드리고, 인간 조상에는 소홀하여 인간 조상들이 옥황상제(고대중) 또는 염라대왕(이중춘, 서순실)에게 하소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차사에게 스만이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 변신생, 한태주,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스만이의 명이 30 또는 33에 정해져 있기에 잡아오라는 명령을 한다. 이용옥 구연본에서는 조상의 하소연이 있어 살펴보니 스만이의 정명임을 알게 된다고 하였고, 김만보 구연본에서는 산 짐승을 잡은 죄로 압송해보니 마침 정명이었다. 정명에 의해서 죽음에 직면하느냐, 조상의 발동으로 죽음에 직면하느냐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스만이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죽음의 문제를 다음 단락과 같이 해골에 의해서 풀게 된다.

• 해골의 도움으로 죽음 모면

스만이를 잡으러 삼차사가 온다는 사실을 해골이 미리 알고 그 대비책을 알려주어 죽음에서 모면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단락의 핵심이다. 해골의 대비책은 굿을 하고, 또 차사를 대접할 상을 차려 대접하게 하는 것이다. 대접을 받은 삼차사가 결국은 정명이 적혀있는 문서를 조작해줌으로써 스만이의 목숨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다.

이본별로 스만이 대신 대신대명의 의미로 대신 잡아가는 인물들이 존재하며 그 명칭이 각각이다. 고대중 구연본에서는 물 세 마리, 변신생 구연본에서는 유스만, 한태주 구연본에서는 오만골 오스만, 이중춘의 1991년 구연본에서는 스필이, 1994년 구연본에서는 오만이, 서순실 구연본에서는 오만으로 나타난다.

고대중, 변신생 구연본에서는 스만이가 죽음을 모면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래산 스만을 잡기 위하여 삼체사 또는 강림이가 숲을 강물에 씻는 속임수로 잡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 첨가된다. 또 서순실, 이중춘 1994년본, 이용옥 구연본에서는 동방색이 등장을 시키나 이것이 무슨 관계로 첨가되었는지 분명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굿이라는 의례 현장에서 심방에 의해서 구연되는 신화이기에 하나의 같은 이야기도 그 차이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을 구연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더 강조해야 더 설득력이 있다 여겨지기 때문에 살이 붙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제거되면서 자기만의 구연본이 생성되는 것이다. 게다가 문헌으로 정착되어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귀로 들으면서 그 가사를 암기해야 하는 전통시대의 굿학습 방법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만이본풀이>의 경우는 5개의 핵심적인 서사단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스만의 총 구입, ② 해골의 습득, ③ 해골에 대한 정성과 부의 축적, ④ 스만의 죽음 직면, ⑤ 해골의 도움으로 죽음 모면이 그것이다.

VI. <스만이본풀이>의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와 전용(diversion)

필자의 추론은 <스만이본풀이(맹감본풀이)>는 본래 수렵신에 대한 본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본풀이는 중산간 마을에서 우마를 방목하여 기르던 ‘말테우리’ 또는 사냥을 업으로 삼았던 이들의 의례에서 불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아마도 이춘아 구연본처럼 후반부의 이야기, 이른바 스만이가 자신의 정명을 늘리는 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첨가됨으로써 수렵신이라는 한정된 울타리를 넘어서 ‘생업신’ 일반으로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여러 굿에서 특정 의례 목적의 무가가 시대 변화에 따라 재인식되는 이른바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²⁴⁾가 일어나는 것은 흔하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천연

24) 원래의 텍스트(text)를 탄생시킨 맥락(context, 배경)을 다시 재해석하는 것을 재맥락화라 부른다. 이를테면 줄다리기가 처음에는 농민들의 풍농을 기원하는 세시민속이었다. 여기서 줄다리기는 텍스트가 되고, ‘농민들의 풍농을 기원하는 목적’은 맥락이 된다. 그런데 이런 줄다리기가 오늘날엔 농민 뿐 아니라 한 도시, 더 나아가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고, 풍농을 넘어서서 각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런 것을 재맥락화라 부른다. 굿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재맥락화와 관련한 민속학 논문으로는 다음의 것 참조. (한양명(2009),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두 마마를 관장하는 ‘손님굿’이 동해안, 남해안(거제·통영)에 있다. 그런데 이제는 천연두, 마마라는 질병이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해안굿, 남해안굿에서 그 굿거리가 지속되고 있다. 전통의 무의식적 계승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굿을 하는 무당들은 굿을 보러 온 이들에게 ‘천연두’의 신이 아닌 ‘질병의 신’으로 이해시킨다. 이런 사례로 바라보면 ‘수렵신’으로 한정되어 불렸을 <스만이본풀이>가 오늘날 ‘생업신’으로 확장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재맥락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통의례에서 흔히 보이는 ‘무의식적 계승’때문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설날과 추석에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왜,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집안 대대로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을 능사로 삼는 집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계승’이다. 고민과 토론을 거쳤을 때 그 의례의 양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나 그러지 않는다. 어쩌면 ‘의례’를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고민과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경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두 번째, 무속의례의 경우는 특히 퇴적층에 비유할 수 있다. 고대, 원시신앙으로 시작된 토착종교가, 중세시대, 근대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신앙들과 조우하고, 그것들을 무속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테면 12개의 굿거리가 있다면 이것이 어느 날 한 시기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듭하면서 들어가고, 빠지고, 보태지고, 덜어지면서 정형화된 것이다.

이렇게 오랜기간 정형화된 것이, 근현대의 급작스런 변화를 바로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순발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가 아닌 구한말, 현대에서도 신격화할 수 있는 신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무속신앙에 전형적인 신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또 과거 죽음, 재수, 출산과 양육, 병, 조상 등 외에 오늘날 대두되는 우리 삶의 문제를 위한 굿거리-이를테면 환경, 교육과 취업, 연애와 사랑 등과 같은 굿거리가 필요할법한데 그러한 굿거리가 창출되지는 못하고 있다. 마치 판소리의 경우 오늘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세시대에 전형화된 5바탕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어쩌면 전통문화 계승자들의 태도와도 연관된다. 흔히 전통문화의 계승자들은 ‘옛날 옛법 버리지 않고, 새로 새법 만들지 않고’라는 관용어를 사용한다. 즉, 과거의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 이른바 ‘원형유지’를 최상의 미덕으로 삼는다. 이것은 흔히 하나의 예술적 장르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장르법칙’을 옹호하게 지키려는 힘이 대세일 수록 그 장르는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쉽게 존재하고 있는 굿거리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서서히 그 존재의 정당성을 개발하면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굿을 하는 제주도의 심방들 또한 이러한 인식이 강하다.

<스만이본풀이>는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를 넘어서서 새로운 의례 기능

영산줄다리기의 경우, 한국민속학 49권, 한국민속학회 ; 이경엽(2011), 고싸움놀이의 문화재 지정과 축제화, 재맥락화, 남도민속연구 23호, 남도민속학회)

으로의 전용(轉用, diversion)이 일어난다. 본래 수렵신, 생업신에 대한 본풀이로 생성되었을 신화에, 후반부 서사가 첨가내지 확증되면서 ‘죽음’, ‘액’과 관련한 신화로 인식되는 것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후반부 서사가 첨가되었고, 또 이를 시왕맞이의 액막음 등으로 사용했는지 모른다. 오히려 오늘날 굿을 하는 이들이나 신앙민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있어왔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서사의 첨가와 연행의 전용을 과도한 의심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제기할만한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와 전용(diversion)은 곧 신화의 생명력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의례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스만 이본풀이>의 특징, 더 나아가 제주 무속신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강정식 외(2008),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보고서.
 강정식(2015),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김태곤(1989),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문무병(1998),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문무병(2001), 제주도큰굿자료:1994년 동김녕 문순실택 중당클굿,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손진태(1930),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2012), 조선신가유편:이북 땅의 무가 1, 박이정.
 임석재·장주근(1964), 관북지방무가,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3호, 문화재관리국.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허남춘 외(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허남춘 외(2009),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허남춘 외(2013),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허남춘 외(2015),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현용준(1965), 제주도무당굿놀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4호, 문화재관리국.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 논저

권태효(2000),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32집, 한국민속학회

김태곤(1989),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김형근(2010), 제주도 <맹감본풀이(스만이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탐라문화 36집, 탐라문화연구소.

서대석(1968), 서사무가연구-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윤순희(2009), 제주도 와산리 맹감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이주영(2010), 代命型 서사무가들의 이본 간 관계 및 구조 결정 요인, 구비문학연구 31집, 한국구비문학회.

전라북도립국악원(2000),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정제호(2016), 서사무가에 나타난 <왕랑반혼전> 수용의 양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41집, 고소설학회.

최원오(1997),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집, 한국민속학회.

현승환(2000), 사만이본풀이 연구, 백록어문 16집, 백록어문학회.

현용준(2005), 제주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홍태한(2001), <장자풀이> 무가 연구, 한국의 민속과 문화 4, 경희대 민속학연구소.